



눈 속에 피어난 동백꽃
그 안에 품어진 열정과 꿈



‘기다림’, ‘애타는 사랑’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에도 얼지 않고,
아름다운 자태를 지키고 있기에

동백꽃이 품은 마음에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모든 자연이 침묵을 지키는 이때,

세상을 지키다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가 되면
슬며시 자리를 비켜주는 모습이
동백꽃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열정을 품은 채 묵묵히 제 소신을 다하는
붉은 꽃망울이 추운 겨울
자연이 선사한 유일한 선물로 느껴진다.